

4 종합

조직행동론 대면 전환 수강인원은 대폭 감소

오승현 기자 dirk0212@khu.ac.kr

【서울】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 의혹으로 대면 전환이 확정된 경영학과 조직행동론의 수강 가능 인원이 170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기존 수강 인원은 466명이었다.

조직행동론은 경영학과 2학년 전공필수 과목으로 지난 1학기, 3개 강좌가 열렸다.

당시 해당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인원은 총 466명이었다. 이중 구자숙(경영학) 교수의 수업은 온라인으로 진행돼 35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6월, 중앙도서관에서 온라인 강의를 듣는 몇몇 수강생들의 부정행위 공모를 목격했다는 제보가 이어졌다.

과 동아리 중심으로 단체로 시험을 응시하거나 'Zoom(줌)' 아바타 기능을 활용해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구 교수는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 차단을 위해 이번 학기부터 대면 강의 전환을 밝혔다.

대면 전환의 결과는 수강 가능

인원 축소로 돌아왔다. 대면 전환으로, 이번 학기에는 총 170명의 인원이 해당 강의를 수강할 수 있게 됐고, 지난 학기와 비교해 수강 가능 인원이 1/3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번 학기 조직행동론을 수강하는 이예지(경영학 2024) 씨는 “지난 학기 수강신청 때는 온라인 강의가 있어 마지막 날까지 신청 가능 인원이 넉넉했지만, 이번 수강신청 때는 신청 가능 인원이 빠르게 사라졌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도 있었다. 경기도 수원시에서 왕복 4시간 거리를 통학한다는 A 씨는 “통학 시간을 줄이려 한 학기에 온라인 강의 한 개씩 들을 생각으로 1학기에는 책임경영 수업을 듣고 2학기에 조직행동론을 들으려 했는데, 갑작스레 대면으로 전환돼 심란하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경영대 행정실은 “이번 학기는 갑작스럽게 대면으로 전환되면서 수강 가능 인원이 감소했다”며 “다음 학기는 수요에 따라 강좌 증설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조직행동론 수강 인원이 대폭 감소한 가운데, 경영대 행정실은 “다음 학기에 수요에 따라 강좌 증설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사진=대학주보 DB)

동문에게 듣는 생생한 직무 이야기 ‘직무탐색 집중교육’ 총 10회 예정

김민영 기자 myk5060@khu.ac.kr

미래인재센터가 지난 11일부터 ‘직무탐색 집중교육-동문멘토와 함께하는 릴레이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특강은 오는 27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해당 특강은 재학생, 휴학생, 미취업 졸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별히 상반기 잡페스티벌과 연계돼, 전 회차 강사가 현업에서 활동 중인 본교 동문으로 구성되었다. 미래인재센터는 “기존 직무탐색 집중교육은 산업 트렌드 이해와 직무별 인재상, 핵심역량 습득을 위해 현직자를 초청해왔다”며 “이번에는 잡페스티벌과 연계하여 동문 강사를 통해 교감과 동기부여를 강화하고, 시공간 제약 없이 다양한 직무 특강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학생들의 요구가 많은 이공계열 직무를 포함해 폭넓은 분야를 구성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강의 주제는 ▲Project Manager (PM) ▲자동차 설계 연구원 ▲PB(지점영업) ▲기업 내 법무담당 ▲마케팅 ▲화장품 연구 ▲인사(채용/조직인력관리/제도기획) ▲해외영업 ▲밸리데이션 ▲MD와 같이 다양한 직무를 아우른다.

지난 11일에 열린 1회차 특강에는 박유진(경영학 2015) 동문이 ‘유통/이커머스 IT PM의 커리어패스와 프로젝트 ssul’을 주제로 나섰다. 약 60명이 신청한 이번 강연에서 박 동문은 자신의 커리어 패스와 PM 직무에 대해 설명하며 “향후 내 전공 혹은 경험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면서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박 동문은 먼저 PM에 대해 “프로

젝트의 시작과 끝을 책임지는 직무”라고 정의했다. 이어 일정·비용·인력·품질을 총괄하며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완성되도록 조율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주어진 시간과 인력, 예산 안에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것이 PM의 가장 큰 책무”라며,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요구사항을 적절히 협의하고 조율하는 능력도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들도 팀 프로젝트에서 일정 관리나 역할 분담을 경험한다면 PM 업무와 비슷한 역량을 쌓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IT업계에서의 PM 업무에 대해서는 “고객이나 부서에서 제기한 요구사항을 구체화해 분석·설계 단계로 연결하고, 개발자와 협업해 구현까지 이끌어가는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UI·UX 디자인 검토부터 단위·통합·인수 테스트까지 프로젝트 전 과정을 책임지는 것이 PM의 중요한 업무라고 덧붙였다. 박 동문은 “PM의 매력은 같은 회사에서도 매일이 새롭다는 점”이라며, 다양한 사람들과 협업하며 성장할 수 있는 직무임을 강조했다.

박 동문은 대기업 마케터에서 IT업계의 PM으로 전환한 경험을 바탕으로 취업·이직의 공통 포인트를 짚었다. 특히 “PM 직무에선 전문지식보단 프로젝트 경험이 중요하다”며 자신만의 독보적인 스토리를 육하원칙의 방식으로 쌓아갈 것을 권했다. PM의 핵심역량으로 ▲빠른 이해와 판단 ▲협업 태도 ▲정신적 회복력을 제시하며, “여러분은 어떤 PM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라는 질문과 함께 강의를 마무리했다.

12일에 열린 2회차 강의에서는 이도은(정보디스플레이학 2019) 동

문이 ‘문과 출신에서 대기업 석사 신입 설계 연구원까지: 자동차 설계 직무 및 이공계 커리어 전략’을 소개했다. 자율전공학과로 입학해 정보디스플레이학과를 졸업한 이 동문은 “처음부터 대학원 진학을 목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양한 대외경험과 학습경험을 통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고민했다”며 진로를 설정한 과정을 공유했다.

이어 “석사 연구에서 취업까지의 여정에서는 단순히 좋은 연구 성과를 내는 것뿐 아니라, 이를 산업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관심 있는 직무와 회사에 대한 이해를 자기소개서에 녹여내는 것이 합격의 열쇠”라고 조언했다.

미래인재센터는 “직무탐색 집중교육을 통해 참여 학생이 희망 직무의 산업 트렌드를 이해하고, 본인의 성공적인 진로취업 프로세스를 설계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직무중심의 산학연계 프로그램과 현직자의 공신력 있는 경험과 역량을 기반으로 학생들의 실질적인 직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직무탐색 집중교육은 현재 4회차까지 진행되었으며, 오는 27일까지 ‘무자격증으로 IT 대기업(네이버, 카카오, 쿠팡, 당근마켓) 마케팅 인턴십 성공기: 예비 마케터 준비전략 및 커리어패스’, ‘화장품 연구원의 하루: 융합적 접근과 경력 개발 멘토링’ 등 다양한 강의를 이어질 예정이다. 신청은 직무탐색 집중교육 포스터 내 QR코드를 통해 가능했으며, 신청은 지난 4일 종료됐다.

한편 미래인재센터는 오는 9월 27일경 하반기 잡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이다.



대학주보



대학주보 카카오톡채널이 생성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고 경희대학교소식 받아보세요!!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

카톡 상단 검색창 클릭 → QR코드 스캔 → 채널 추가

kakaotalk

